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합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4호
서기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자기 세우면 '꿈' 근본에 맡기면 '자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요

문 정말이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근본에서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나는 거짓 자기자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 중생심, 이기심, 자만심에 빠진 거짓 자기를 믿는다면 항상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참나. 수억 겁을 거쳐서 나를 이끌어 온 나의 근본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을 나오게 한 근본에 다 놓아나가는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공부의 재료라는 사실을 진정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가슴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진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근본이자 나의 스승인 주인공은 진심으로 믿고 맡겨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냥 송장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근본,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만 하니 이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느 나무가 자기 뿌리더러 하는 소리가 '뿌리아 뿌리아. 너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었으니 내가 네 싸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하고 말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너가 나를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가 모든 영양분을 올려 보내마.' 하고 좋아하더라면 그렇게 싸이 뿌리러지겠습니까.

그러니 자유는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실하게 영원한 친구이자 스승인 나의 근본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맡겨 놓고 자유스럽게 사십시오. 왜 자기를 세워서 스스로 자유스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림 · 최주현

관음 지장 칠성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 마음으로 쌓은 업보 녹여야 편히 살죠

어떤 부처님을 믿어야 할지...

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희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소내의 불교교리 방에서 지내는데 사모님께서는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면서 지내지도 어떤 6년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공경한 것이 있습니다.

스님마다 법사님마다 지장보살이 좋다 관세음보살이 좋다 나무묘법연화경이 좋다고 서로 다르게 말씀하시어서 재소자 불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재소자 불교회장이어서 저에게 문의를 해오는 실정인데 지도 딱 꼬집어서 대답을 못해 방편설과 비유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때 설명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좀 상세하게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현대불교 신문은 잘 받아 보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답 자기 안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없이 그저 바깥으로 "지장보살이 좋다. 관세음보살이 좋다. 아미타불이 좋다."고 남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리 그달리고 저리 그달리면서 흔들린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한다고 할 수 없겠지요.

왜 부처님께서 수억의 깨우친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의 부처라고, 일불(一佛)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 깨우침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둘이 아닌 진리인데 바깥으로 그렇게 자주 찾는다면, 스스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 진리의 길과 멀어질까 두려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인 것이다.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인 것입니다. 즉 문수주.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움직여주는 보현입니다. 화신이지요. 자주 바뀌지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이 세상을 다 쥐고, 굴리고,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를 듣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게 한순간에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하면서 자주 변해서 돌아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없으니 만큼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전부 부처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 할 때 부처라 하겠으며 또 나라고 하겠느냐. 아내를 만났을 때는 남편이지만 자식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해서 돌아가는 것을 법신이니 화신이니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의 능력으로써 심성의 능력으로써, 순간 순간 지게 됐다가 지게 됐다가 내가 어떤 지가 됐다가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으로 그달리는 사람은 칠성부처님께 놓고 빌면 명이 길어진다라는 것이 아주 상식처럼 돼있어요. 지장보살에 놓고 빌면 좋은 데로 간다. 관세음에 놓고 빌면 밝아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 용신한테 놓고 빌면 용왕이 도와준다. 지신한테 놓고 빌면 지신이 도와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공식처럼 다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통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양무제가 '내가 이런 불사도 하고 저런 불사도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하셨는까. 그 이유가 뭐가?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근본인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놓고 바깥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가고 당지도 않고 그저 바깥으로 여가다 놓고 빌면 좋아진다더라. 저기다 놓고 빌면 좋아진다더라 하고 해나간다면 다가오는 고난을, 병고역난이니 뭐니 고통스럽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말하자면 맺물이 심봉을 꿰어야 돌아가고 또 풀건이 갈라져 나오는데, 심봉을 꿰지 않으면 그 맺물인들 온전하며 풀건인들 제대로 갈라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나를 이끌고 다

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몸통이를 끌고 다니는 내 한마음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의식들을 뭉뚱한데 합쳐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 오는 어떤 의식도 다 한마음이라고 관하며, 한마음 속에서 모두 나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다스리는 내 마음이 자주 알아지니까, 저절로 '아! 나하고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다면 몸이 아파도 자기가 자기를 낫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의 세포 하나 하나에도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바깥에 두고 있는 모든 걸 안으로 두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하면 전부 한마음으로 이끌어지게 되거든요.

한마음으로 이끌어지게 되니까 몸 어디에 파업이 일어나서 좀 힘들더라도 그걸 매꿔주게 되죠, 자기니까. 바로 자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깥으로, 나 따로 부처님 따로, 되는 거 따로 안되는 거 따로, 이렇게 모두 갈라놓으니까 갈라질 수밖에요. 일일이 꿰어다녀도, 일일이 해물개만 돌아오지 이익된 게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 관세음이란 지장이든 이름만 다르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체를 통하여 자연히 용도대로, 필요한 대로 쓰이는 이치를 밝게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문 어느 두 부부가 쌍둥이를 하고 얼굴도 아주 미인으로 고치고 미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주 못생긴 겁니다. 자기네를 원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보고는 부끄러워 잘 생기고 미인인데 어째서 애는 이렇게 매주 덩어리같이 생겼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느 누가 이렇게 길러줬습니까. '당신은 당신 그림 그려 가지고 나온 것을 생각지 말고, 당신 할아버지가 참 잘 생겼으니 할아버지 얼굴과 몸집 그대로, 태교할 때에 생각해서 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잘생기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즉 마음입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 몸중에도 없건만 마음으로 그렇게 잘 그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어린애, 그 자라는 어린애의 마음이나 우리 산 사람들 마음이나 모든 게 같이 늙어서 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든지 어린애를 원하면 '어린애 있기 이전부터 모든 걸 관하라.' 하고 일러줍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익히 아는 삼신한테 관하라 이거죠. 삼신은 즉 말하자면, 우리의 자상보를 말하는 겁니다. 자상보에 연결이 돼있는 삼신, 즉 말하자면 관결을 낼 수 있는 삼신이라는 말이지요. 삼신이라니까 어린애만 받는 소임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떤 차원에서 차원까지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용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게 관해야죠. 관해서 어린애를 가지면 태교는 백일이 지날 때까지는 보살피거든요. 배안에서도 삼신이 보살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을 때에 태교로 잘 이끌어간다면 그대로 알아듣게 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고 그대로 과거의 어떠한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렸다

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 것이 다 없이 세상에 나오게 돼야하지 않겠느냐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업보가 물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에 의해서 쌓이고 쌓인 거죠. 그거를 벗어내뜨리고 나오게 해야, 그 업보성과 인과성이 없어 큰 병도 안 낫고 또 그 인연에 따라서 약의 선군을 갖지도 않고 약의 인연을 갖지도 않고 편리하게 인연을 가지면서 선으로서의 인연을 갖게 하고, 효도라고 할거는 없지만 부모에게 귀찮게 하지 않고 약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되면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어린애를 낳기 이전에 태교를 생각해 보지 않고 어린애를 가져서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노력 없이 좋은 아들을 보려고 하고 좋은 딸을 보려고 하는지는 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 들일 수 있었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추수를 해 들이는 거 아닙니까? 거름도 줘야 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추수를 해 들이듯이 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하나하나 낳는 데도 그런 소임이, 그런 역할이 들어 가야만 소중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소중한 딸을 낳을 수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공부 아닌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태교를 잘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답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태교를 잘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답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태교를 잘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답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태교를 잘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답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태교를 잘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답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증거라는데 아픈데도 통증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겠는지, 무엇을 알고 가야하는지 크신 가르침 바랍니다.

문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이 없이 놓고 그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하면 고통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옵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가 문제죠. 내가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공심이 되고 공식이 되니까 안에 있는 생명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살 양으로 모두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모든 생명들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러니 그 집이 무너지면 자기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한데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삐끗해서 아프다 이럴 때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너의 집이 고달픈데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 하고 관하면 그냥 저냥 나아서 다치게 되는 거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만이 잘못하고 나만이 잘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면 자성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으로서 육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살로 화하게 만들어서 전부 응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첫째 싸움이 없으니 병이 안 걸리죠. 싸움이 없으니 또 화목하죠. 몸이 화목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면 가정이 더 편안한 겁니다. 어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공부로 알고 공한 도리를 안다면 괴로워도 괴로움이 없다는 얘지요. 아무리 아파도 아픈 것이 어디서 왔나 하고 본질하게 아파하지 않고 편안하단 얘지요. 마음이 편안하니가 병도 병이 아니라 그냥 공부죠. 아프지 않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묘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벌써 사망 광장으로 돌아 치면서 이런 죽었다고 아파들을 하죠. 내 육신이 차라고 생각한다면 차가 고장이 아니면 누가 고칠지? 그 주인공 운전수가 고쳐야죠. 만 사람이 고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쳐야죠. 그러니 주인이 어떤지 알아서 고쳐줄까봐 그렇게 아단을 하느냐는 얘지요. 그 마음이 아단을 하니가 몸이 더 아플 거 아닙니까. 모르는 분들도 어떡해서 그런가 하고 산란하겠지만 모르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하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애고·병고·유전성·영계성·세균성 등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 다 하더라도 '홍'하고 코웃음을 탁 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또 생각해, 내가 공부하라고 내놓은 거니까, 아프지 않고 고가 닥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잖아.' 하고 맡겨 놓고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라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행차원 높이고 싶어요

문 무라바 책을 통해서 스님의 참된 법문을 접한 지가 십 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학별 속에서 해매는 느낌입니다. 몇 년 전에 정진하다가 내 자신이 작아지면서 몸 속에서 몸이 아닌 황금빛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의 모습을 경험한 이후 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은 확고해졌지만 또 다시 현실생활에 끌리면서 요즘은 명상을 하면 정신은 조금 맑아질 뿐 좀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느낌이랄까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수행처를 찾아 나설까 생각하고

20면으로 계속

가끔은 안목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45신 288쪽
값 6,000원
여서이문